

그림책을 활용한 기본생활습관 지원

그림책과 함께 자람

(사후 모임)



사후모임 보고



| 일시: 2026년 1월 29일 13:30 ~ 15:00

| 장소: 온안 검단점

| 참석자: 전문가 (강경자 교수님)

아라에미지 어린이집 (정윙희)

아라한신어반파크 어린이집 (박상민)

아라모아숲 어린이집 (최경희)

뷰티폴파크어린이집 (여현정)

뷰티폴파크어린이집 (박자영)

사후 모임 주요 논의 내용



그림책을 활용한
기본생활습관 지원

- ✓ 결과보고서 및 발표 방향성 논의
- ✓ 학습공동체를 마치며

결과보고서 및 발표 방향성 논의



1. 그림책을 매개로 한 놀이지원을 통해 영아의 변화를 기록하기
2. 가정 연계 자료를 활용해 일상과 놀이 연결을 강조할 것을 논의
3.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의견 교환.
4. 발표 시 영아·가정·교사 변화와 학습공동체 의미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방법, 시각 자료(동영상) 활용 방안 논의.

학습공동체를 마치며

박상민 교사

놀이중심 보육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과 선택, 반복되는 행동의 의미를 관찰하고 존중하는 실천으로 나의 보육 관점이 변화하였다. 동료 교사들과의 협의와 사례 나눔은 보육 실천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가보다 실천의 이유와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습공동체는 마무리되었지만 교사의 성장은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지속될 것이다.

여현정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그림책을 매개로 배변과 기본생활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1세 영아들에게 일상은 곧 배움의 과정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 가정의 영아들이 많은 우리 어린이집 특성상 그림책은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기다림과 반복 속에서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신감이 자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성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경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겠다.

학습공동체를 마치며

정윙희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영아 놀이에 귀 기울이고,
기다려주는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반복되는 놀이 속에서 영아들이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며 놀이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배운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함께 성장하는 교사로서
앞으로도 계속 성찰하고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고 느꼈다.

최경희 교사

'함께자람'은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나누고 혼자가 아닌
함께 실천하며 성장한 시간이다.
그림책 한 권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가
교사와 영아, 가정을 잇는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아이결에서 배우며
아이와 함께 자라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자영 교사

학습공동체를 마치며
그림책을 매개로 한 놀이와 관찰을 통해
영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교사로서 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앞으로도 그림책과 놀이를 활용해
영아의 관심과 발달을 존중하는
보육을 이어가고, 관찰과 성찰을
꾸준히 실천하며
개별 특성과 가정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께 자람

감사합니다.

